

“누구를 위한

선동열 감독 재계약 논란

우승 후보 거론되던 전력 3년간 5-8-8위 ‘추락’
찾은 부상·얕은 선수층...기대주 육성 없이 2년 허송

‘꼴찌 싸움’이 전개되면서 KIA 선동열 감독의 퇴진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았다. 구단은 리빌딩에 초점을 맞춰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고 현장에서는 차기 감독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성적에 대한 아쉬움은 가득했지만 팬들은 ‘레전드’와의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했다.

그러나 선 감독이 시즌 중반 구단 최고위층과 자리를 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유입론이 대두됐다. 한화의 꼴찌가 확정되면서 유입론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고, 결과는 소문대로였다.

선 감독의 재계약 소식이 나오지 하루가 지났지만 팬심은 여전히 냉랭하다. ‘팀을 위한 야구인이 감독을 위한 야구인가’, ‘1982년부터 팬이었는데 타이거즈와 멀어져야겠다’, ‘팬들이 다 떠나봐야 할 것인가’ 등의 이야기가 각종 야구 게시판에 도배하고 있다.

시위, 퇴진 광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가을잔치’보다는 KIA발 소식이 야구팬에 더 화제가 되고 있다. 생각보다 더 차가운 여론에 구단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프로의 책임’이 여론의 핵심이다.

윤석민의 포스팅 불허, FA·신인·외국인 선수 영입, 트레이드 등 구단은 현장의 의견에 따라 전폭적인 투자를 했다. 하지만 5-8-8위가 최근 3년간의 성적이다.

고질적인 부상, 얕은 선수층 등 약점은 있었지만 2012년에만 해도 우승



KIA 인가”

들끓는 팬심

“타이거즈 버려야 겠다” “팬 다 떠나야 알건가”
팬들, 퇴진·삭감 아닌 파격 대우에 분통

후보로 꼽히던 팀이다. 선 감독도 부임 첫째 ‘우승’을 얘기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 KIA와 선 감독은 리빌딩을 얘기하고 있다. 첫째 시행착오를 감안하더라도 잃어버린 2년이다.

야성이 결집된 선수들도 ‘588’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전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선수들을 묶는 최종적인 책임은 수장의 몫이다. 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프로이고,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프로 세계의 룰이다.

KIA는 이런저런 사연과 상황이 있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못마땅을 맞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진짜’ 문제는 여론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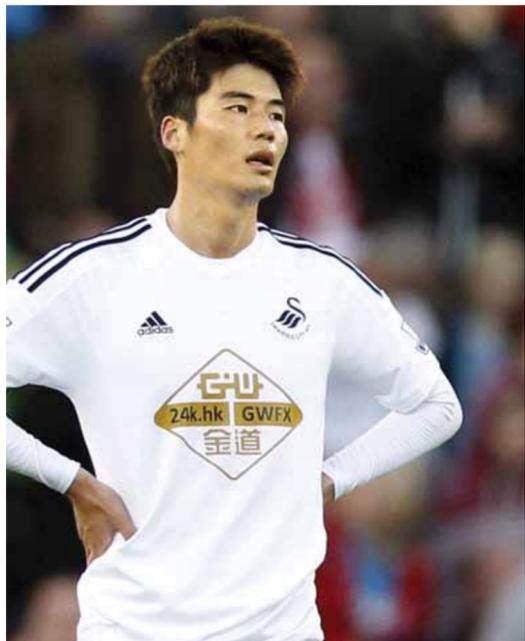
KIA는 동결된 연봉(3억8000만원)으로 선 감독과의 재계약을 끝냈다. 3년간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시즌 KIA 선수들은 8위의 성적을 내는데 그치며 연봉 칼바람을 맞았다. 부족했던 실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다. 올 시즌도 8위로 끝나면서 규정대로라면 총액 20% 삭감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8위를 지휘한 수장에 대한 적용기준을 고려한다면 내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봉 문제 뿐만 아니라 “프로는 성적으로 말하라”는 프로의 당연한 논리가 옹색한 얘기가 되고 말았다는 점도 빼야 한다.

‘프로의 책임’을 놓고 지중수를 둔 KIA. 냉정한 반성과 책임없는 리빌딩은 허울뿐인 목표가 될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플타임 뛰었지만...

기성용 스완지시티, 스톡시티에 1-2 패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19일(현지시간) 영국 스톡 온 트랜트의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스톡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팀의 골이 나오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주장 기성용(25·스완지시티)이 플타임 활약을 펼쳤으나 팀의 역전패를 막지 못했다.

기성용은 19일(현지시간) 영국 스톡 온 트랜트의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스톡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경기에서는 스톡시티가 2-1로 역전승했다. 기성용은 슈팅을 네 차례나 시도했고 이 가운데 세 번이 유효 슈팅일 만큼 상대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날 스완지시티가 기록한 유효 슈팅 5개 가운데 3개를 기성용이 기록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34분에 윌프리드 보니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앞서 나갔으나 9분 뒤에 똑같이 페널티킥을 스톡시티에 내주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1-1로 팽팽하던 경기는 후반 31분 조너선 윌터스가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낸 스톡시티 쪽으로 기울었다. 최근 세 경기에서 2무1패로 부진한 스완지시티는 3승2무3패로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가운데 8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20일 덴마크 옌센에서 열린 덴마크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시리즈 남자 복식 결승에서 이용대(왼쪽)의 파트너 유연성이 리턴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이용대-유연성 덴마크오픈 2연패 좌절

중국에 0-2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인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수원시청)이 덴마크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2연패에 실패했다.

이용대-유연성은 20일(한국시간) 덴마크 옌센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장난-푸하이핑(중국)에게 0-2(13-21 23-25)로 져 준우승했다.

둘은 지난해 국가대표 남자복식 파트너로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슈퍼시리즈급 대회에서 여러 번 정상에 오르며 세계랭킹 1위가 지 췌했다.

그러나 8월 세계개인선수권대회와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이번 대회까지 최근 큰 대회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잇달아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결승에서 이용대-유연성은

1세트 초반 5-5에서 내리 석 점을 내준 이후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13-21로 졌다. 2세트에서는 막판까지 접전을 펼쳤으나 결국 23-23 듀스 상황에서 2연속 실점하며 금메달을 내주고 말았다.

남자단식 결승에 진출한 손완호(김천시청)도 세계랭킹 2위이자 올해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천통(중국)에게 0-2(19-21 22-24)로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완호는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단식 결승에서 첫 주자로 나서 전례를 겪는 이번을 연출했으나 이후 아시안게임 남자단식 8강전과 이번 결승전에서는 천통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대회 남자복식과 남자단식 외에도 여자단식(리웨이), 여자복식(왕샤오리-위양), 혼합복식(쉬첸-마진)까지 전 종목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연합뉴스

LPGA 국가 대항전 2018년 한국 개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주관하는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2018년 한국에서 열린다.

LPGA 투어 사무국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간 타이틀 스폰서로 미국의 안전 시스템 인증기업인 UL을 선정하고 2018년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의 골프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LPGA 투어의 마이크 완 커미셔너는 “한국은 골프팬의 엄청난 지원과 함께 지난 세월 동안 열렸던 LPGA 대회를 통해 여성골프계에 확실한 모델로 자리잡았다”며 “이

러한 점 때문에 한국을 인터내셔널 크라운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LPGA는 이와 함께 2016년 열리는 제2회 대회를 미국 시카고의 리치 허베스트 팜스 골프장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제1회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한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3위에 그쳤고, 우승트로피는 스페인이 가져갔다.

완 커미셔너는 “세계랭킹으로 출전 선수를 정하는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